

IMF의 한파로 움츠러들었던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와 함께 사회 전반적으로 소비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또 다시 외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소비 심리는 IMF 사태 이전 수준,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거품이건 아니건 간에 경기가 이처럼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음반 시장, 특히나 팝 음악 시장만큼은 कै어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에서 팝 음반의 골드 레코드와 플래티넘의 기준이 5만 장, 10만 장에서 각각 3만, 6만 장으로 떨어졌을까...그나마도 한 헛동안 발매되는 팝 음반 중에서 골드 레코드 이상을 기록하는 음반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게 우리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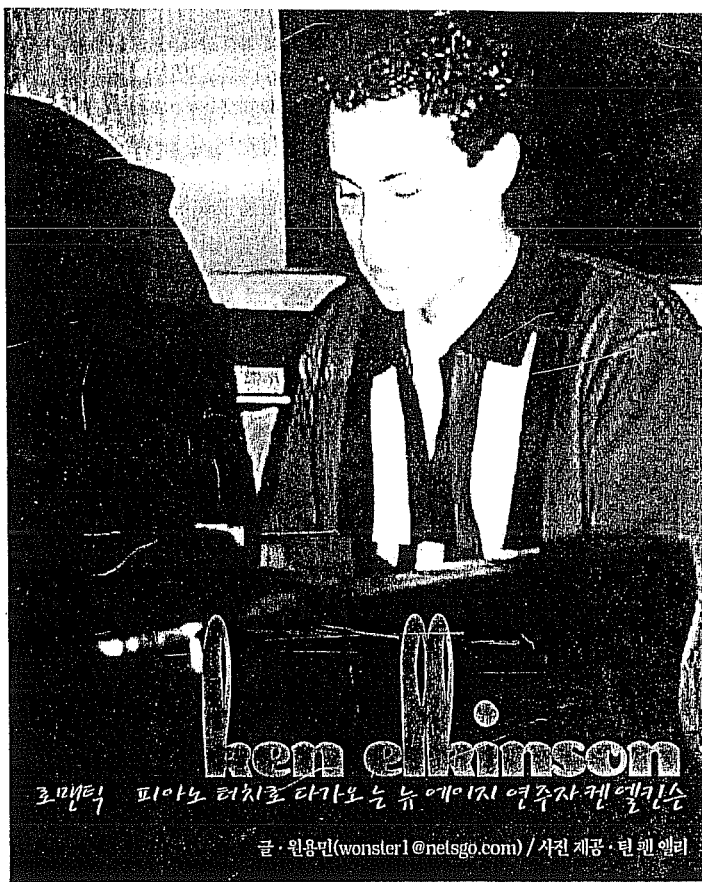
이처럼 불황인 가운데서도 의외의 성공을 거둔 아티스트들이 있다. 캐나다 출신 연주자 앙드레 가봉을 비롯해 우리 정서에 잘 들어맞는 음악들로 일련의 음반들을 베스트 셀러로 만들어낸 유키 구라모토가 그들이다. 이들은 인기의 여세를 몰아 내한 공연을 성공리에 갖기도 했다. 아마도 마음을 정화시켜 주는 무공해 사운드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연주 음반이 안 팔리는 나라도 드물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유독 피아노 연주 음반 만큼은 성공을 거둔 편이다.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리처드 클레이더만이 있었고 1980년대에는 조지 윈스턴이 뉴 에이지 사운드로 선풍을 일으켰다(사탄의 음악이라는 터무니 없는 구설수에 올라있는 바로 그 뉴 에이지 음악이다). 그리고 1990년대의 막바지에 일군의 피아노 연주자들의 음반이 다시 이 땅의 음악 팬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 클래식 연주장에 가 보면 제일 지루한 것이 피아노 독주회일 만큼 피아노 솔로는 단조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인데 이처럼 인기를 얻는 것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피아노 한 번 안 배워본 사람이 없을 만큼 대중적인 악기가 피아노 인만큼(물론 집에 피아노가 있느냐 없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엄마들의 성화에 못이겨 피아노 학원 한 번 안 다녀 본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피아노 연주곡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닐까 싶고, 거기 덧붙여 피아노라는 악기가 빛어내는 서정적 멜로디는 쉽게 우리 정서에 파고들 수 있었던 듯 하다.

이런 연주 음악 바람을 타고 신예 뉴에이지 피아니스트인 켄 엘킨슨의 앨범이 국내에 소개된다. 전혀 생소한 이름이지만 켄 엘킨슨은 뉴 에이지 전문지 등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는 실력파이다. 이 앨범 MIDNIGHT CONVERSATION은 지난 1997년 발매되었던 데뷔작이다.

1972년 8월 28일 뉴저지주의 세다 그로브(Cedar Grove)에서 태어난 그는 대부분의 연주자들이 그렇듯이 어렸을 때인 다섯살 무렵부터 클래식 피아노 연주를 시작했고 10여년간 클래식 교육을 받은 뒤 재즈 및 팝 음악을 두루 섭렵했으며 대학에서는 작곡과 주흥 인주를 공부했다. 잠시 록 밴드에서 연주 활동을 한 경력도 있다. 대학



졸업 후 잠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한 그는 곧 연주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저작권들도 채워진 이 앨범을 1997년 봄 발매하기에 이른다.

이 앨범은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방송되며 널리 인기를 얻었고 40여개 항공 노선의 기내 방송 서비스에 포함되기도 했을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앨범으로 처리된 제킷이 눈길을 끄는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 'Midnight Conversation'에 걸맞는 로맨틱한 음악들이 가득 들어있다. 다분히 낭만주의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의 연주는 차분한 터치가 인상적인데 같은 곡 내에서 멜로디와 리듬을 바꾸어가며 변화를 추구하는가 하면 광적인 성향의 편안한 연주를 들려주고 있기도 하다. 또한 마치 클래식 소품처럼 고급스런 느낌을 주는 곡들도 있는 등 안정감있는 연주가 담긴 곡들이 앨범을 가득 채우고 있다.

대중적으로 사랑받을 가능성이 큰 편안한 멜로디의 Waves, 뛰어난 연주력을 엿볼 수 있는 수작 Midnight conversation 등 마치 조지 윈스턴의 초기작품을 연상시키는 로맨틱한 멜로디 라인이 인상적이다. 이 밖에도 젊은 열기를 느낄 수 있는 Hope, 유년 시절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듯한 Reflections(Forgotten days), 중간 중간 빈주가 돋보이는 Dancing eyes 등의 작품이 팬들을 기다리고 있다. < >

